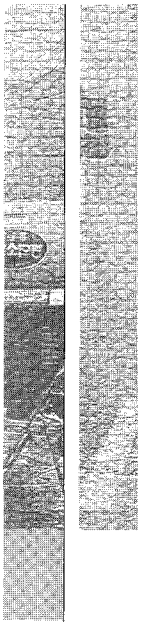


# 구제역 방역을 위한 올바른 소독요령

- 대한양돈협회, 도드람양돈농협 -



## 1. 문제점

- 1) 여러 가지 소독제를 혼합해서 사용한다.
  - 소독효과 감소 및 자극성 증가의 경우도 있음
- 2) 희석배율을 지키지 않는다.
  - 정해진 희석배율은 효과와 자극성, 경제성을 고려해 정해진 사항
- 3) 생석회를 뿌리고, 그 위에 소독약이나 물을 계속 뿌린다.
  - 생석회와 물이 반응하면 열이 나서 일시적 소독효과가 있지만, 물이나 산성소독제와 반응 해서 PH가 떨어져 지속적 효과는 감소 및 상실 우려
- 4) 돼지에 직접 자극성이 강한 소독제(포르말린, 가성소다 등)를 분무
  - 독성으로 부작용 우려
  - 설명서를 보며, 목적에 맞게 사용
- 5) 외부에서 미세한 입자의 분무기를 사용한다.
  - 금방 소독약이 증발해 버려, 소독효과가 미미하다.
- 6) 성분을 보지 않고 소독제를 구입해 사용한다.
  - 성분에 따라서 질병별로 효과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.
  - 가축에 직접사용시에 문제가 있는 소독약은 외부용으로 사용해야 함

## 2. 효과적인 소독을 위해서

- 1) 구제역에 효과 인정된 소독제를 돈사 내부, 외부로 목적에 따라 사용
  - 인근 전문수의사에게 상담하거나 표시 확인
- 2) 희석배수를 정확히 한다.
  - 사용하는 물통의 용량과 바가지의 용량을 미리 측정해둔다(1.5리터 페트병으로 바가지 용량을 측정해두면 편리).
- 3) 생석회의 올바른 사용법
  - 자동차가 달리는 곳에는 생석회 사용자제(필요시 덩어리 생석회 사용)
  - 생석회는 농장입구, 출하대 주변, 돈분장 주변, 돈사 주변 등에 사용
  - 비가 오거나 젖은 후에는 추가 살포
- 4) 돈사나 주변 소독시에 10분내에 소독약이 마르지 않을 정도의 양을 사용
- 5) 여러 가지 소독제를 섞지 않아야 한다.
- 6) 돈사입구쪽, 관리자가 머무른 돈방, 접촉한 돼지나 기구를 집중해서 소독
- 7) 사료차, 출하차 등이 머무르거나 출입한 장소는 즉시 소독